

2023년 9-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9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9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vs. 中 기준을 인하 단행

- 미국은 8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 속에 체감·선행지수 약세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일본은 7월 경제지표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日銀(BOJ)이 현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의 유지를 결정하고, 유로존은 7월 실물지표들의 부진으로 역내 경기하강 우려 속에도 유럽중앙銀(ECB)이 '22.7월 이후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
- 중국은 8월 경제지표들의 반등에도 내·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25bp, 7.4%)를 단행
- 달러화는 9월 들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와 美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美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세
- 유가는 9월 초 사우디의 감산 시한 연장과 美 원유재고 감소세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주요 기관들의 연말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우려 등으로 재상승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전환

-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전월비 0.4%)가 이어지고 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확대(-2.0%)되면서 3개월 만에 감소(-0.7%)
 - 소매판매는 내구재(-5.1%) 등의 판매가 감소한 여파로 3.2%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3.6%)와 운송장비(-22.4%) 등의 감소 여파로 8.9% 감소

□ 금 융 : 8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9월 중순(9월 12일 ~ 25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 영향으로 전월비 상당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더욱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9월 FOMC 회의에서의 매파적 기조 확인 등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중국과 일본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 9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1,330원대로 재상승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1%, 서비스업생산 +1.9%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전자부품, 반도체, 기계장비,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8.1% 감소
 - 제조업ICT와 중공업과 경공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1.9% 증가

□ 고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9% 증가

- 지난 8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0.7% → 0.9%)

□ 수출입 : 8월 수출 -8.3%, 수입 -22.8%, 무역수지 9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3% 감소한 519억 달러, 수입도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에도 자동차·선박·기계·가전·디스플레이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데다, 對중국 수출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16.2% → -8.3%)

1. 해외경제

□ 미국 : 8월 경제지표 혼조, 연준(Fed)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 시사

○ 8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세와 선행지수 하락세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 연준이 연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 시사

- 산업생산은 광업(전월비 1.4%)과 유틸리티(0.9%), 제조업(0.1%)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증가(0.4%)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9%)와 자동차·부품(0.3%)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0.6%)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기준치(50)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전월에 이어 추가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4.8)와 미래 기대지수(80.2)가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전월비 18.7만 개)한 영향에도 실업률이 3개월 만에 상승하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7개월 연속 하락세
-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올해 말 경제성장률과 물가(PCE)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3.3%로 상향하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 시사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2.1 (2.5)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0.9)	0.2 (6.8)	-0.3 (1.2)	-0.4 (1.5)	0.7 (1.6)	0.4 (0.8)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5.4	2.0	4.4	-5.2	-
소매판매	18.2	9.7	0.1	1.1	0.1	0.7	0.2	0.5	0.6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1	0.2	0.2	0.6
실업률(%)	5.4	3.6	3.6	3.5	3.6	3.7	3.6	3.5	3.8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13.5	-201.8	-203.5	-66.8	-63.7	-65.0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9.2	47.1	46.7	46.9	46.0	46.4	47.6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2	104.5	105.4	102.5	110.1	114.0	106.1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1.6	109.4	106.7	106.7	106.1	105.8	105.4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7월 실물지표 혼조, BOJ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 유지

- 7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입의 대폭 감소(-13.6%)에도 수출 감소(-0.3%) 여파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 日 정부가 고물가 등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밝힌 가운데 日銀(BOJ)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1	0.8	1.2				
광공업생산	5.8	0.0	-1.7	-1.8	1.4	0.7	-2.2	2.4	-1.8
민간기계수주	6.0	5.5	-4.7	2.6	-3.2	5.5	-7.6	2.7	-1.1
소매판매	2.0	2.6	1.2	2.5	0.5	-1.1	1.4	-0.6	2.2
소비자물가	-0.2	2.5	1.1	0.5	0.7	0.6	0.0	0.2	0.4
실업률(%)	2.8	2.6	2.5	2.6	2.6	2.6	2.6	2.5	2.7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662	-5,185	-1,779	-436	-1,382	39	-66
경기선행지수 ¹⁾	114.2	112.0	109.7	108.3	108.6	108.0	109.0	108.8	107.6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8월 내·외수 지표 반등, 인민은행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 단행

-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재차 확대되고,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내·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부동산 위기 등 中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8월 단기 금리 인하에 이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25bp, 7.4%)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3.5	4.4	3.7	4.5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4.0	3.8	3.4	3.2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2.7	3.1	2.5	4.6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2	0.0	-0.3	0.1
수출(달러화기준)	29.6	6.1	-8.0	-1.9	-4.8	-7.3	-12.4	-14.3	-8.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7월 실물지표 약세, ECB 고물가 대응 위한 금리 인상 단행

- 7월 실물지표들의 감소와 체감지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역내 경기 하강 우려감이 고조.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0.9% → 0.7%) 하면서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25bp의 금리 인상('22.7월부터 10번째)을 단행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1	0.1	0.1				
산업생산	8.8	2.1	-1.0	-0.3	-1.0	1.3	0.1	0.4	-1.1
소매판매	5.1	0.9	-1.1	-0.2	0.1	0.0	0.6	0.2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10.0	8.0	6.2	7.0	6.1	5.5	5.3
무역수지(10억유로)	98.2	-343.0	-64.1	-5.9	0.3	-8.1	-0.2	8.6	2.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5.3	99.2	96.9	98.9	96.4	95.3	94.5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상승 지속

- 달러화는 9월 들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로 美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이 FOMC 회의 이후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통화긴축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美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세
- 유가는 9월 초 사우디의 감산 시한 연장(~연말)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美 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에, 주요 기관들의 연말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우려 제기로 추가 상승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25일
엔/달러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8.88
달러/유로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93
미 국채 (10년만기)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53
WTI유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6	90.7
두바이유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3.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전환

○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전월비 0.4%)가 이어지고 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 감소폭이 확대(-2.0%)되면서 3개월 만에 감소(-0.7%)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섬유제품(-4.5%)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2.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6%) 등 감소에도 정보통신업(3.2%)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0.4%)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5* (0.3*)	-1.0 (-1.3)	-1.4 (0.7)	0.7* (0.0*)	-1.4* (-0.7*)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5* (3.1*)	-9.1 (-0.7)	-7.6 (3.1)	-5.9* (-1.5*)	-8.0* (-2.0*)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8* (3.3*)	-9.3 (-0.7)	-7.8 (3.0)	-6.2* (-1.6*)	-8.1* (-2.0*)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3* (-0.4*)	2.9 (-0.4)	1.2 (-0.9)	3.0* (0.5*)	1.9* (0.4*)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2* (-0.3*)	-1.4 (-2.6)	-0.6 (0.6)	1.5* (0.9*)	-1.7* (-3.2*)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1.2* (1.3*)	4.2 (0.8)	-4.9 (3.1)	-2.4* (-1.1*)	-11.0* (-8.9*)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9.0* (-0.7*)	12.4 (1.2)	5.7 (0.7)	9.1* (-2.0*)	10.8* (0.8*)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9	108.8	110.2*	110.0	110.3*	110.3*	1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100.5	99.7	100.2*	100.3	100.3*	100.1*	99.6*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6	109.4	109.9*	109.4	109.8*	110.5*	111.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100.0	99.0	98.7*	98.5	98.6*	98.9*	99.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5.1%) 판매가 상당폭 감소한 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와 의복 등 준내구재(-3.6%) 등의 판매도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3.2%)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3.6%)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22.4%)에서 동반 감소한 여파로 인해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8.9%)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3.5%) 공사의 약세에도 건축(2.0%) 공사 호조에 소폭 증가(0.8%)
- 동행종합지수가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6개월 만에 하락(전월비 -0.3%)한 반면에,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을 제외하고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에서 동반 상승한 데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0.5%)

□ 물가 : 8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1.0%

- 8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2.9%)와 교통(3.8%)을 비롯해서 음식·숙박(0.3%),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1.0% 상승(전년동월비 3.4%, 2023년 1월 이후 처음 상승폭 확대)
- 8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전월비 4.7% → 7.3%)되고, 공산품 가격이 4개월 만에 상승(0.0% → 1.1%)한 데다, 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0.3% → 0.3%)하면서 전월비 기준 0.9% 상승(전년동월비 1.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4.2 (0.2)	3.7 (0.2)	3.3 (0.3)	2.7 (0.0)	2.3 (0.1)	3.4 (1.0)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4.8 (0.2)	4.6 (0.4)	4.3 (0.4)	4.1 (0.2)	3.9 (-0.1)	3.9 (0.2)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0.6* (-0.3*)	3.3 (0.1)	1.6 (-0.1)	0.5 (-0.4)	-0.3 (-0.2)	-0.3* (0.3*)	1.0* (0.9*)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0.3* (0.1*)	1.9 (0.2)	1.0 (0.2)	0.1 (-0.3)	-0.4 (-0.3)	-0.4* (0.0*)	0.5* (0.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8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 지난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 증가세의 소폭 둔화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월비 상당폭의 증가세가 지속
(2023년 7월 +8.7조원 → 8월 +8.2조원, 대기업 +2.9조원, 중소기업 +5.2조원)
 - 대기업 대출이 우량 기업들의 운전 및 시설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기업금융 확대 노력과 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 차환자금 선조달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7월 -1.1조원 → 8월 -1.1조원)
- CP·단기사채는 특히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순상환 기조로 전환
(2023년 7월 +0.6조원 → 8월 -1.8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
(2023년 7월 +0.6조원 → 8월 +0.5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원화대출	65.0	7.9	80.4	8.7	56.6	5.5	8.7	8.2	1,226.9
(대 기 업)	3.7	0.3	23.3	2.9	23.3	2.4	3.8	2.9	239.1
(중소기업)	61.3	7.6	57.3	5.8	33.3	3.1	4.9	5.2	987.8
〈개인사업자〉	27.1	3.4	18.3	2.2	6.2	0.2	1.5	1.2	448.9
■회사채 순발행	14.9	-0.2	-1.5	0.3	2.9	-0.8	-1.1	-1.1	..
■CP 순발행	8.7	-0.2	16.0	3.5	1.2	-0.5	0.6	-1.8	57.8
■주식발행	23.1	6.6	19.9	0.3	3.7	0.4	0.6	0.5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기타 대출도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7월 +5.9조원 → 8월 +6.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7월 +5.9조원 → 8월 +7.0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세가 지속
(2023년 7월 -0.05조원 → 8월 -0.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57.5	6.1	0.1	0.3	17.0	5.8	5.9	6.9	1,075.0
■주택담보대출	42.3	5.8	13.8	1.6	28.9	6.9	5.9	7.0	827.8
■기타대출	15.2	0.3	-13.9	-1.3	-11.8	-1.2	-0.05	-0.1	246.0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9월 중순(9월 12일 ~ 25일)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 초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강화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美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 9월 FOMC 회의에서의 매파적 기조 확인 등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9월 12일 3.863% → 9월 25일 3.876%, +0.01%p)
- 원/달러 환율은 9월 들어 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속에 1,330원대로 재상승하고, 중국과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 9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1,330원대로 재상승
(9월 12일 1,327.8원 → 9월 25일 1,336.5원, +8.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2/4	8월	9.25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71	3.88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47	4.64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69	3.83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3	4.08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21.8	1,336.5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5.1	901.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8.1%, 전월비 -2.0%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6.2%)와 기타운송장비(1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19.8%), 반도체(-14.8%), 기계장비(-14.5%), 섬유제품(-10.6%), 화학제품(-7.5%), 1차금속(-6.0%)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8.1%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6.4%)와 중공업(-8.1%), 경공업(-7.7%)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재차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0.7) 등을 제외하고, 전자부품(-11.2%)과 반도체(-2.3%), 기계장비(-7.1%), 자동차(-0.2%), 1차금속(-2.4%), 화학제품(-0.9%), 석유정제(-0.5%), 섬유제품(-4.5%) 등에서 감소하면서 2.0%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0)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2.0%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0.0%)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9%로 전월과 달리 11.6%p 상승 전환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7월중 재고 증가폭(4.2% → 5.2%,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재차 감소 전환(2.2% → -5.6%)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2%로 전월보다 1.6%p 하락(2개월 연속 하락세)

□ 서비스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8%)와 숙박·음식점(-7.2%), 정보통신(-0.8%)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수창고(7.3%), 전문·과학·기술서비스(3.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2%)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9%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1.9%)와 정보통신(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0.5%) 등 업종에서 증가하고, 도소매(-1.2%), 숙박·음식점(-0.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1%) 등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2.0%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6.1%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7	104.8	107.6	104.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5	-7.6	-5.9	-8.0	-2.0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2	105.4	108.2	104.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8	-7.8	-6.2	-8.1	-2.0
섬 유	113.4	2.0	-3.5	-10.1	-7.8	-9.1	-10.2	-7.1	-10.6	-4.5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1	-16.6	-10.7	-7.5	-0.9
철 강	496.6	5.2	-8.5	-23.3	-6.5	-2.6	-3.0	-3.2	-5.6	-3.2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18.7	-15.8	-14.8	-2.3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11.5	-12.3	-42.1	-17.3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18.4	-16.8	-12.3	6.1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4	-17.1	-7.1	-11.9	-3.3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6.6	-7.3	-8.0	-14.5	-7.1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8.9	10.8	6.2	-0.2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1.0	7.7	6.2	-3.6
- 중 공 업	-	9.9	1.5	-7.3	-10.7	-7.7	-7.6	-6.1	-8.1	-2.3
- 경 공 업	-	1.3	0.4	-4.0	-5.6	-8.3	-9.2	-6.2	-7.7	-0.2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1	-19.3	-15.7	-16.4	-3.8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2	114.1	117.6	114.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3	1.2	3.0	1.9	0.5
도소매	193.9	4.3	2.7	1.1	2.8	-1.1	-1.7	0.9	-1.8	0.6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5	8.3	7.9	7.3	-0.9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4.9	-4.7	-7.2	0.5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3.8	-5.0	-3.3	-0.8	-0.5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7.0	4.5	7.1	7.7	3.5
부동산	38.7	2.3	8.0	6.0	4.1	3.0	3.0	3.4	2.6	-2.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5	2.3	3.9	3.4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5	2.8	2.7	3.2	1.3
교 육	73.5	1.5	1.2	0.3	1.1	0.2	-0.2	1.3	1.9	0.7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9	3.5	3.9	-1.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0.1	9.1	-8.4	5.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4	3.8	7.5	4.1	-0.3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6	-2.2	1.6	-2.8	-2.1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8	0.9	2.2	2.0	-6.1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8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9% 증가

○ 지난 8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0.7% → 0.9%)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감소세(-1.5%)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2.5% → -1.1%)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5개월 만에 확대(1.3% → 1.6%)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2.0% → 0.0%)한 데 반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는 4개월 연속 둔화(1.3% →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8% → 4.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5.3% → 4.9%), 정보통신업(4.9% → 4.5%)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2% → 2.2%),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4% → 1.6%)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2.4%)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4%로서 전월보다 0.4%p나 하락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8,432	28,835	28,812	28,686	28,678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3	1.2	1.2	0.7	0.9
농림·어업	0.9	4.6	2.0	-1.6	-0.3	0.8	-0.9	-0.8	-2.5	-1.1
제조업	-0.2	3.1	2.9	-0.8	-1.1	-2.1	-0.9	-0.2	-0.8	-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2.0	1.8	1.6	1.3	1.6
건설업	3.7	1.6	0.2	-1.0	-2.4	-1.5	-3.0	-2.8	-2.0	0.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2.0	1.8	1.6	1.3	0.9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1.2	1.5	1.1	0.5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6	2.9	2.8	3.0	2.9	2.6	2.2	2.4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6	2.5	2.6	2.8	2.4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8월 수출 8.3% 감소, 수입 22.8% 감소, 무역수지 약 9억 달러 흑자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3% 감소한 519억 달러, 수입도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에도 자동차·선박·기계·가전·디스플레이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데다, 對중국 수출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유가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42.0%)하고,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2.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23.4%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40.3% 감소한 약 63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495 (-14.4)	521 (-15.4)	542 (-5.9)	505 (-16.2)	519 (-8.3)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6 (-13.0)	522 (-13.3)	543 (-14.0)	531 (-11.7)	487 (-25.4)	510 (-22.8)
무역수지	293	-478	-186	-227	-38	-28	-22	12	18	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선박·가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과 반도체 업계의 추가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마트폰·태블릿 등 IT기기 판매 약세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자동차 :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하계 휴가 기간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SUV 차량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북미·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국산 브랜드 완성차들의 판매 호조와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 전환
- **선박류** : 2023년 수출 선박들이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주 계약분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모바일 OLED 패널 수요 회복과 LTPO 등 프리미엄 모바일, IT제품 및 자동차 분야 OLED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모델 비중 확대와 사양 개선 등에 따른 평균 수출단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17개월 연속)
- **철강** : 자동차용 강재 수요 증가와 강관 및 반제품 중심의 수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름 비수기 영향에 따른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對중국 의류 수출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아세안과 베트남 등 주요 소싱국에서의 한국산 소재·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업계 정기보수 영향에 따른 가동률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 전년도의 고유가 역기저효과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주요 시장인 對중국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시황 약세 등으로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중국의 건설시장 침체 장기화 및 계절적 요인 등 수출 감소 요인에도, 중남미·중동 등 전략 시장 내 현지 생산공장 신설 등 신규 수요가 확대

되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미국 등 주요국들의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대형가전 및 프리미엄 가전 수요 회복과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PC 등 전자제품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축소에 따른 공급 과잉 및 단가 하락, 글로벌 SSD 시장에서의逆시장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8.9	40.3	49.2	58.3	15.0	28.7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1.7	-0.8	5.5	-0.5	5.9
선박류	16.4	-20.9	-22.6	2.0	21.3	59.2	-47.8	98.9	-30.9	35.2
일반기계	4.6	2.0	-3.1	-2.0	5.6	7.7	1.4	7.9	3.1	7.7
철 강	36.9	5.7	-17.6	-15.8	-5.7	-10.9	-8.9	3.1	-10.4	-11.3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2	-23.6	-26.6	-22.2	-24.0	-12.1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4.8	-29.0	-34.9	-40.0	-39.7	-35.1
섬 유	14.0	-4.0	-18.7	-15.2	-11.1	-15.0	-15.0	-2.8	-15.4	-10.9
가 전	24.0	-7.4	-24.0	-8.5	-7.5	-10.3	-13.7	3.3	2.5	12.2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3.4	-20.8	-34.3	-12.1	-12.3	-15.3	-7.8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73.3	-57.5	-53.5	-33.4	-54.6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41.0	-36.2	-28.0	-33.6	-20.6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29.3	-7.4	-11.1	-4.6	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	---------------------------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9월)

-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대외 여건을 반영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5가지 리스크를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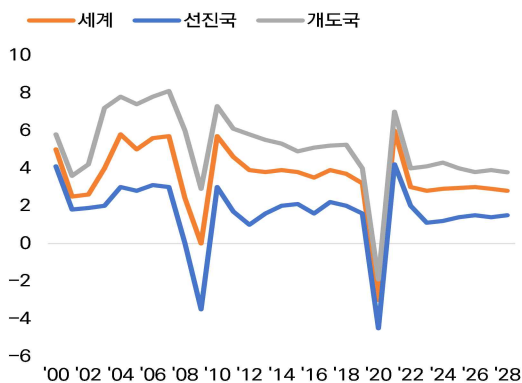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피크 아웃**

- 미국·유로존·영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2022년 대비 크게 하락할 전망
- 신흥개도국 경제도 하반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경제 성장률이 5%대 회복세를 달성하는 경우 2022년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글로벌 공급망 훼손, 미·중 갈등 심화 등 영향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세계경제가 연간 성장률이 2% 후반대로 하락 전망

□ **美 달러화의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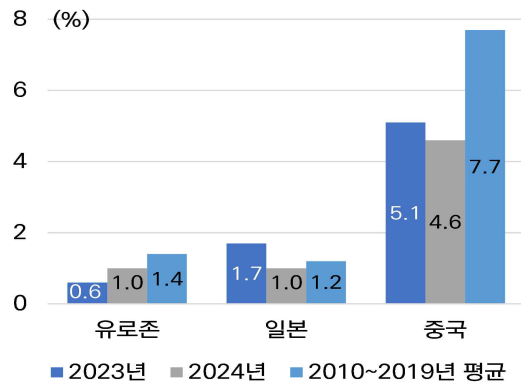
- 美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통화정책 전환 시점의 지연, 유로화·엔화 등準기축통화 발행 국가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美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
- 2024년 상반기까지 강달러 지속이 예상되고, 약세 전환에도 낙폭은 제한적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주 : 경제성장률은 실질 기준.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



자료 : Bloomberg.
주 : 전망 시점은 2023년 8월.

□ **中 부동산 경기 침체 심화**

- 중국의 부채가 기업 중심으로 과도하게 누증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위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22년 말 158.2%, 가계부채도 급증 추세
- 민간 부문에서 본격적인 디레버리징과 전방위적인 투자 위축이 나타난 것은 아니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대차대조표 불황에의 진입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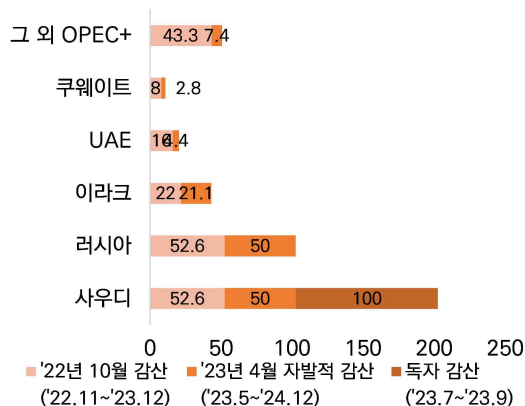
□ 국제 원자재가격 불안 재현

- 국제 유가는 2023년 하반기 들어 배럴당 80달러대 수준까지 상승하고, 사우디 등 OPEC+의 감산 정책 연장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
- 더욱이 엘니뇨 지속으로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 확대 우려

□ 글로벌 제조업 부진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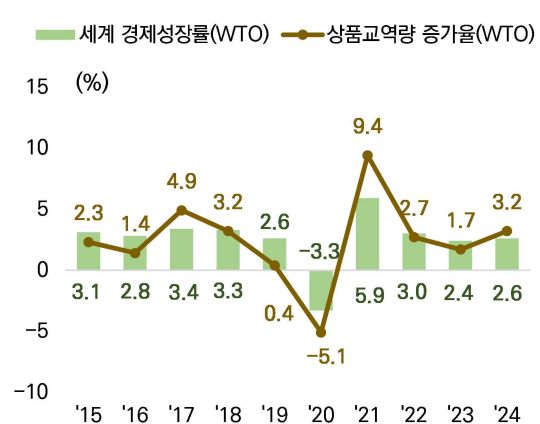
- 2023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2024년에는 반등이 예상되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2022년에 대폭 감소한 전세계 FDI도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이 커지고 있어 회복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교역의 약한 회복세, 세계 FDI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업황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OPEC+ 국가별 감산량 〉



자료 : 페트로넷, 국제에너지산업동향.

〈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감률 추이 〉














































자료 : WTO.
주 : 경제성장률은 시장환율 기준.

□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리스크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운용과 투자 회복을 통한 고용·소비·성장 기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 형성 등 국내경제의 펀더멘털 강화가 시급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황 등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민간의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
-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불안 재현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책 마련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9.25일)	(9.26일)	(9.27일)	(9.28일)	(9.29일)
	 9월 소비자신뢰지수  9월 소비자동향조사	 7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8월 내구재수주(잠)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8월 무역수지(수)  9월 경제제감지수  23.2분기 실질GDP (확정치)	 8월 산업생산(잠)  8월 소매판매(잠)  8월 실업률  9월 소비자물가(예)  8월 개인소비 <div>(10.1일)</div>  9월 수출입통계
(10.2일)	(10.3일)	(10.4일)	(10.5일)	(10.6일)
 8월 실업률  9월 ISM 제조업지수  8월 산업활동동향		 8월 소매판매  9월 ISM 서비스업지수	 8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물가	 8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9월 고용보고서
(10.9일)	(10.10일)	(10.11일)	(10.12일)	(10.13일)
		 9월 생산자물가	 8월 기계수주  9월 소비자물가	 9월 소비자물가  9월 수출입통계  8월 산업생산  9월 고용동향
(10.16일)	(10.17일)	(10.18일)	(10.19일)	(10.20일)
 8월 산업생산(수)  8월 소매판매(수)  8월 수출입통계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고정투자  23.3분기 실질GDP  9월 소비자물가(수)	 9월 무역수지(잠)  9월 경기선행지수	 9월 소비자물가